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계으름 말고 수행에 힘써라.
오직 열반을 향해 나아가라.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월 22일) · 주간

제 1035호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지정 배 아픈 개신교, 불교 편혜 '눈살'

개신교계, 역명 반대 무산되자 봉은사 '흠집내기'

3월 28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역명에 대한 개신교계의 도넛은 행태가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대표 최희)는 3월 4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봉은사역명을 확정·고시한 것은 한국 전통문화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을 결정 간 갈등 양상으로 몰고 있는 일부 개신교 단체와 언론은 무책임한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불교계의 성명 발표는 개신교계의 봉은사역명 확정 이후 진행된 지정 반대운동이 상식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은 2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봉은사가 '역사에 인접한 고적이나 사적, 문화재로 등록된 사찰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코엑스역'으로의 역명 변경을 요구했다. 이들은 100만 서명운동과 서울시 행정불복 운동까지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신교계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명 결정 개입설과 불교

편향 정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봉은사 역명 지정 결과를 공개하며 "역명은 해당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옛지명 또는 법정동명, 가로명 등을 원칙으로 한다"며 "세 차례 심의를 통해 확정·고시한 것으로 역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라시대 창건돼 1200년 역사를 지켜온 봉은사는 조선시대 승가 사행된 곳으로 서산·사명대사를 배출했을 뿐 아니라 의승군의 중심역할도 했다. 그 역사성에 봉은초교, 봉은중학교, 봉은역사공원, 강남구의 대로 중 하나인 '봉은사로'까지, '봉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만 해도 다수다.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봉은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만도 연간 25만 명에 달한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봉은사역 근방은 오래전부터 봉은 마을로 불려온 지역이며 역명 고유성과 지속성, 공익성에 있어 검토된 사안"이라며 "역명제정 원칙과 예외

역명 관한 개신교계 '딴지'

광주 중심사 입구역 논란

광주지하철 1호선 중심사 입구역의 2004년 개통을 앞두고 개신교계는 학동3거리역으로의 명칭 변경을 주장. 우여곡절 끝에 중심사 입구역으로 확정.

KTX울산역 통도사역 명기 논란

2010년 개통된 울산역은 당시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울산(통도사)역으로 명기하기로 함. 이후 개신교계의 집단적인 반발에 통도사 명칭 표기 삭제, 통도사 등 지역불교계 반발.

순복음교회 소유 국민일보

봉은사를 '친일사찰' 매도

한기총은 행정불복중 운동

실증 '무책임 행보' 비판

봉은사, 친일 반박 나설 듯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사항을 명확히 해 향후 역명개정에 대한 논란 및 개정(명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지역 주민들과 자치구 지명위원회, 코엑스 관계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1년간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강남구청이 2014년 1월 실시한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 설문조사에서는 봉은사역(60.5%)이 코엑스역(35%)을 압도적으로 앞선 바 있다.

공식적인 경로로 역명 변경이 무산되자 개신교계는 대대적인 불교 편혜까지 나서고 있다. 순복음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중앙 일간지 '국민일보'는 3월 2일 '봉은사가 대표적인 친일사찰이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사찰령'에 따라 지정된 31개 본산 중 한 곳이 봉은사였으며 이 당시 주지 4명이 친일승려로 거론되고 있다며 봉은사를 친일사찰로 규정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N사에서 벌인 봉은사역 지정에 대한 투표에서도 이러한 행태는 이어졌다. 개신교 신자로 추정되는 이 모씨는 투표 독려 메시지를 통해 봉은사가 친일대표사찰이라고 매도하며 코엑스역으로 투표해줄 것을 전했

다. 평균 1만명 수준인 이 사이트 투표는 마감 5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30만표가 넘게 몰리며 결국 코엑스역이 앞섰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된다, 안된다'를 따르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위로 우리 사회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며 "봉은사는 한민족 역사의 일부 사에서는 봉은사역(60.5%)이 코엑스역(35%)을 압도적으로 앞선 바 있다."

불교계는 종교 갈등 우려에도 개신교계의 불교 편혜에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정민일보"는 3월 2일 '봉은사가 대표적인 친일사찰이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사찰령'에 따라 지정된 31개 본산 중 한 곳이 봉은사였으며 이 당시 주지 4명이 친일승려로 거론되고 있다며 봉은사를 친일사찰로 규정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N사에서 벌인 봉은사역 지정에 대한 투표에서도 이러한 행태는 이어졌다. 개신교 신자로 추정되는 이 모씨는 투표 독려 메시지를 통해 봉은사가 친일대표사찰이라고 매도하며 코엑스역으로 투표해줄 것을 전했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관련 법인 197곳 중 111곳(56%) 등록 완료

조계종 총무부, 3일 법인 등록 현황 발표

조계종이 지난 2월 28일까지 법인들에 대한 종단 등록을 시행한 결과 총 111개 법인이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부는 3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관련 법인에 대한 등록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197개 법인 중 111개 법인이 등록을 마쳤다. 이는 전체 법인 중 56.3%가 등록한 수치다.

관심을 모았던 사찰보유법인인 성류불교문화재단, 안국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대각회, 한마음선학 스님은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정민일보"는 3월 2일 '봉은사가 대표적인 친일사찰이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사찰령'에 따라 지정된 31개 본산 중 한 곳이 봉은사였으며 이 당시 주지 4명이 친일승려로 거론되고 있다며 봉은사를 친일사찰로 규정했다.

또한 사찰법인은 총 7개의 대상 법인 중 여진불교문화재단과 세등선원, 대한불교 삼불산 대안사, 옥련선원 등 4개 법인이 등록했다.

이와 함께 스님이 재산을 출연해 둔 공식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봉은사와 신도들의 명예훼손에 관해 법적 대응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곳이 각각 등록을 마쳤다.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이하 법인관리법)에 의한 유예기간이 2월 28일자로 종료되면서 미등록 법인에 대한 종단 차원의 제재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관련인, 도제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물론 승려복지 혜택, 교육기관 입학,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법등 스님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선학원과의 진정성있는 대화를 위해서 6개월의 기간 연장을 요청한 만큼 제재 조치는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석심 총무차장은 "2014년 이후 법인 관련 현황부터 등록 홍보까지 진행하면서 60%에 육박하는 법인 등록이 이뤄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미등록법인 상당 수가 법인 등록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공문과 통화, 방문 등을 통해 등록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35호 INDEX

시방세계 5
활동 종료 원자사 무료급식 현장



학술·문화재 9
화쟁아카데미 '경계 너머' 포럼

맑고 밝은 눈을 원하십니까?

- 신료과목: 초음파 배내장 수술, 노안교정 배내장 수술 (토력, 레스토트릭)
- 당뇨 망막 / 녹내장 / 사시 / 콘택트렌즈
- 진료시간: 평일 09:00-18:30, 토요일 09:00-16:00

파주 서울안과 eye clinic
상담전화 031)948-2588



해제... 지혜의 결망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도반과 함께 걷는 깨달음의 길에는 끝이 없었다. 3월 5일 동안거 해제를 기해 겨울 한철 석달간 안거 정진을 마친 수좌 스님들이 다시 만행의 길에 올랐다. '북 마하연, 남 운문' 중 운문선원이 있는 고불총림 백양사 고불선원에서 안거에 든 수좌 스님들은 마지막까지 은산철벽을 무수기 위한 정진을 거듭했으며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도 수좌들과 함께 탁마의 길을 걸었다. 합천 해인사와 양산 통도사 등 조계종 총림과 전국 100여 선원들도 같은 날 같은 해제법회를 열고 석달간의 용맹정진을 마무리했다. 조계종 전국선원사회에서 정리한 방한록에 의하면 전국 98개 선원(총림 8곳, 비구선원 55곳, 비구니선원 35곳)에서 총 2,196명(총림 302명, 비구 1,117명, 비구니 777명)의 대중에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성 백양사·노덕현 기자

동안거 해제 방장 법어 및 백담사 무문관 해제 현장 8·12·13면

사 고
감사편지 공모
-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통의 감사편지는 자기 할렙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곧 불자다운 삶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과 함께 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부처님, 가족, 스승, 친지, 이웃에게 쓰는 '감사편지'를 공모합니다. '감사의 합창'을 생활화 하기 위한 이 행사에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공모 일시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A4 용지 2매 글자크기 10포인트)
접수·문의 우편(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메일(linus@hyunbul.com) 접수 전화 (02)2004-8200
수상 내역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 다수로 수상자에게는 주최·후원단체 대표자의 상패와 상금, 부상이 수여됩니다.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후원 | 불교여성개발원·동산반야회·공림공양회·여여원

보련 기획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연등 자동 승강 장치 **인등시공** **만월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공단등 **황금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일 반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안구 모란로 189번길 2